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호 【루계 제25146호】 주체105(2016)년 1월 3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주체105(2016)년을 맞으며 하신 신년사를 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2016년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며 군수공업부문에서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1월 1일 2016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서 2015년은 경이적인 성과들로 수놓아진 승리와 영광의 해였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조선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시면서 조선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며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자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조선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개선의지와 경제발전 등을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신문 《쁘라브다》와 《아르구멘띠 이 팍띠》, 에호 모스크비방송과 인터네트통신들, 중국보도망, 환구망, 인디아의 유엔아이통신, 영국의 BBC방송,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아사히신붕》도 《김정은제1비서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 호소》, 《김정은제1비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것을 표명》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강철의 령장 김정은최고사령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5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강철의 령장 김정은최고사령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난 4년간 세계는 나라의 군력을 철통같이 다지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완벽하게 수호하시는 걸출한 최고사령관의 영상을 뵈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2012년 1월 1일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신 때로부터 끊임없는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첨단군사과학기술과 무장장비에 정통하신 그이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병진로선이 제시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핵 및 우주강국의 법적담보가 마련됨으로써 조선의 전쟁억제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그 누구도 조선을 건드릴수 없게 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위협공갈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나가시는 과정에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무비의 기상과 담력을 떨치시였다.

세계는 앞으로도 강력한 군력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영상을 뵈옵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과 숨결도 걸음도 함께 하며 조국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고 희망찬 새해 주체105(2016)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흠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새해의 첫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격동속에 맞고보낸 지난해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한길을 따라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는 총공격전에서 자랑찬 승리를 아로새긴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 한해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현대적인 인민생활향상기지들과 문화휴식터들,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물들과 가는 곳마다에 차넘치는 버섯재배, 온실농사, 양어열풍에도,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들에 넘쳐나는 행복의 웃음소리에도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불타는 충정의 분출입니다.

장구한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 견인불발의 의지로 대지를 박차고 세차게 솟구치며 그토록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이룩한 나라와 민족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백전로장도 머리숙일 령장의 천품과 그 어느 정치가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령도적수완,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민족사적대공적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조국인민들, 해외동포들이 심장으로 받들어모신 주체혁명위업의 유일한 최고령도자이시며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시는 친어버이사랑으로 나라의 일들을 다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한없이 그리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조국에서 진행하는 경축행사들에 빠짐없이 불러주시고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 경축공연 등 다채로운 여러 행사들에 초대되여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모습과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모습을 가슴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온 한해동안 해외동포들에게 거듭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들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연길과 길림, 심양, 베이징에서 민족최대의 명절로 가장 뜻깊게 경축하였을뿐아니라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광범한 재중조선인들을 조직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 애국화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해외동포조직으로 튼튼히 꾸리였습니다.

우리들이 지난해에 애국사업에서 적으나마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중조선인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전체 조선공민들이 총련합회의 두리에 단결하여 조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뜻깊은 지난해의 애국사업을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희망찬 새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총정다해 받들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적해외동포운동사상을 언제나 지침으로 삼고 총련합회를 통일애국운동의 선봉에 선 해외동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에서 날로 짙어가는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침략전쟁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새해의 이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이역땅의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념원은 지금 이 시각에도 맵짠 추위를 무릅쓰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선군령도의 길,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재중동포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주체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재중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05(2016)년 1월 1일 중국 심양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 불멸의 기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제작전과 지휘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투쟁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새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를 구절구절 새길수록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운전대를 틀어쥔 우리 일군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력사적사명감을 다시금 자각하게 된다.

특히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불리한 조건에서도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할수 있다는 신심이 백배해진다.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려는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가 고조될수록 우리 일군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여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추켜세우고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인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가져오자면 경제지도일군들의 경제작전과 지휘를 개선해야 한다.

경제일군들이 지난 시기의 낡은 틀과 경험에 매달려 경제작전과 지휘를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면 나라의 경제발전을 오늘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힘있게 추동할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보신주의, 패배주의, 수입병을 불사르고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을수가 있다.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다 바쳐 마련해주신 애국유산인 주체로 일관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발전시키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실현하겠다는 투철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립할 때 가장 과학적으로 선정할수 있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겠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현대화, 자동화의 본보기로 일떠선 전형단위들에서 대혁신의 봉화가 활활 타오르도록 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그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며 경제작전과 지휘를 보다 능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겠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사상을 뼈에 쪼아박고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질 각오로 경제작전과 지휘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겠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축포성이 더 높이 울리도록 하겠다.

내각부총리 로두철

과학기술성과로 비약의 돌파구를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옵는 순간 국가과학원의 전체 과학자,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감격과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정말이지 지난해는 조선로동당기발아래에서만 과학연구사업을 하겠다는 우리 과학자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이 끝없이 분출된 명실공히 과학의 해, 과학자들의 긍지높고 영광스러운 한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금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밀고나가며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각자가 되고 기수가 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들은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의 맨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 서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해나가겠다.

언제나 자신만만한 배짱과 담력을 가지고 전력과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풀어 인민경제를 활성화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나라의 전력문제는 의연히 긴장하다. 우리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일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방도와 생산된 전기를 극력 절약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

또한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과학과 기술로 적극 받들어나가겠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기술전선을 지켜선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

나는 국가과학원의 책임일군으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전체 과학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될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를 마련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겠다. 하여 하늘을 날으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대지를 박차고 오르는 위성속도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날로 비약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자랑찬 모습을 더더욱 빛내여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과업을 받아안은 우리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의 가슴은 지금 세차게 높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앞길을 밝혀준 승리의 기치이다. 지금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무거운 자각을 안고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도의 현실을 손금보듯 알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해당 지역에 맞는 종자와 농사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 이른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인 경험에 기초하여 모든 농장들에서 실정에 맞는 과학농법들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특히 지력과 물보장조건, 해비침률, 온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판준비와 씨뿌리기, 모내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축산과 남새, 버섯, 과수부문에서도 현실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영농기술과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겠다. 전형단위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강도높이 벌리겠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달라붙겠다.

그 무슨 일을 해도 오분열도식일본새가 아니라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내밀어 과학적인 농사방법들이 현실에서 은을 내도록 하는것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농업생산성과로 빛내이겠다.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계명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교육자들을 새 세기 교육혁명에로 불러주시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애국의 호소로 모두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앞에는 당 제7차대회와 대학창립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교육자들과 학생들속에서 5대교양을 강화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해나가겠다.

이와 함께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내경김가공공장 등 여러 공장들에 달려나가 통합생산체계와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실현을 적극 다그쳐 끝내며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연구성과들도 완성하고 이미 핵심기술을 장악한 첨단기술들을 개발완성하여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줄기차게 밀고나가겠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교육사업에 구현하여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능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데서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이 맡고있는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겠다.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리국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학습하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조국을 떠받드는 기적의 창조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우리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불타는 결의로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길수록 더욱 크나큰 힘과 용기가 솟구치고 올해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으로 심장이 세차게 높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선군혁명령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산세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고 우리 돌격대원들모두에게 용맹과 위훈의 나래를 달아주시였다.

지금 우리앞에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전으로 무조건 끝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준 당의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발전소건설전투장마다에서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겠다. 이미 지난해에 상하류가물막이를 끝내고 3호물길취수구, 조압수조콩크리트타입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풍쳐 내달리겠다.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온 공사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겠다. 이와 함께 새 기술, 새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단계별, 공정별, 대상별목표를 일정계획대로 어김없이 점령해나가겠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소중히 새겨안고 발전소지구의 수림화를 다그쳐 주변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자리잡은 지구에 별세상, 별천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 새 풍경을 펼쳐놓겠다. 우리들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기어이 완공함으로써 백두산청년강국의 불패의 위용과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청년전위의 기개를 다시한번 남김없이 떨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참모장 김명룡

주체105(2016)년 새해를 축하하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새해 2016년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희망찬 새해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오랜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두 부하리
2015년 12월 21일 아부쟈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숭고한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팔레스티나국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귀국과 귀국인민에게 언제나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계기와 앞으로의 행복한 계기들에는 이 땅에 평화가 깃들어 우리 지역 인민들이 전쟁과 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안전과 안정속에 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복을 드립니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
2015년 12월 24일 라말라흐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원수각하

나는 2016년 새해를 맞으면서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 귀국과 세계 모든 나라들에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
2015년 12월 30일 까히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새해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새해 주체105(2016)년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통해상사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동포결혼상담중앙쎈터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승리와 영광이 아로새겨질 희망찬 새해 주체105(2016)년을 맞이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비약이 이룩될 새해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축전들은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련결성 60돐이 되는 지난해에 강령적서한을 친히 보내주시여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은정과 천백배의 힘을 안겨주시였다고 축전들은 밝혔다.

축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결성 60돐을 뜻깊게 빛내인 긍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재일동포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보폭을 맞추어 총련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중등교육실시 7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을 맞는 올해 재일동포들은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하고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대오의 일심단결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동포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나갈것이라고 축전들은 지적하였다.

또한 축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중시, 청년중시사상을 구현하여 전체 총련일군들이 동포제일주의의 구호드높이 동포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위해 멸사복무함으로써 총련을 동포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동포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힘있는 애국조직으로 더 잘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전들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의 기치이시고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독창적인 선군정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련합토론회가 지난해 12월 11일 베를린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는 도이췰란드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와 산하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 하노버주체사상연구소조,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의 책임자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도이췰란드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동지-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 책임자 토르스덴 쇠비츠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였으며 조선땅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책동으로 사회주의운동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던 지난세기 말엽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핵무기보다 위력한 수령, 당, 대중의 불패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여 조선을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사회주의보루로 다지시였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를 앞당기며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하시며 그이의 숭고한 사상과 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라말라흐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각하

나는 팔레스티나혁명개시 5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자결권과 귀국의 권리, 독립국가창설권을 포함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다시금 확언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월 1일 평 양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의 존엄 온 세상에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 당창건기념탑에서 —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우리 당의 총로선을 구현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정한 불변의 침로를 따라 승승장구하고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기이고 활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천만군민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발표 24돐을 맞이하고있다.

주체81(1992)년 1월 3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우리 당의 총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가 비껴있는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을 일관성있게 견지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가장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총적방향과 근본방도를 밝힌 총로선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문제이다.

지난 20여년간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총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긍지높은 년대기이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의 《종말》과 자본주의의 《승리》를 떠들며 우리 나라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하였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과감히 헤쳐왔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 더욱 위력해지고 우리 혁명의 주체는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조국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지식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령마루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릴수 있게 된것도, 천만군민이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한 자주적근위병들로 억세게 준비되게 된것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힘찬 진군이야말로 우리 당의 총로선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워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구현해오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 어려있다. 사회주의위업완성의 길을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끄떡없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은 주체의 사상론을 구현하는 길에서 굳게 다져진 정치사상진지의 공고성에 있다.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의 기본진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하나로 단결하면 사회주의는 승리하고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병들면 사회주의는 망하게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주체의 사상론은 우리 당의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맞게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왔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외부로부터의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는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군대와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쳤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책동은 걸음마다 제압분쇄되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의 강력한 성새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우리 당의 사상중시의 력사속에서 억척으로 다져진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는 오늘 새로운 주체100년대 혁명적사상공세의 불길속에서 천백배로 굳건해지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5대교양이 심화되여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과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사회주의의 견결한 수호자들이 바로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우리의 천만군민이다.

사상의 힘은 무한대이며 위대한 사상으로 뭉친 혼연일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사상을 틀어쥐고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앙양시켜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사상중시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도는 밝고 창창하다.

주체의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은 시대의 변천속에서도 흔들림없는 혁명적원칙의 확고부동성에 있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사상의 승리인 동시에 원칙의 승리이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앞에 동요하면서 사회주의원칙을 양보하고 포기한 사상적배신자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은 례외없이 투항이고 변절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과정에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는것만큼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혁명적원칙, 로동계급적선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서 강조된 중요한 사상이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2중, 3중의 포위환속에서 그 누구의 지원도 없이 사회주의를 지켜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극악한 제재봉쇄로 우리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막대한 저애를 주었다. 원쑤들의 위협공갈이 강화되면 될수록, 《원조》를 미끼로 회유하면 할수록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립장은 더욱 투철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였으며 사회주의적소유를 고수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강한 자주적대를 세우고 경제를 우리의 토대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발전시켜나갔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식, 우리의 멋, 우리의 향기가 흘러넘치도록 하였다. 혁명적원칙에서 추호의 드팀도 없는 우리 당과 인민의 불변의 신념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핵무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사회주의본태가 꿋꿋이 살아맥박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지금 미제는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킬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혁명적원칙을 지키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속에서 더욱 단련되고 각성된 불굴의 인간들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는 그 어떤 《개혁》, 《개방》이란 있을수 없으며 발 한걸음 더 뜨겠다고 수십년간 고수해온 혁명적원칙을 저버릴수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강의한 기개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책동을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단호히 짓부시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오늘의 진군길에서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혁명적원칙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금성철벽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은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월성에 있다.

지구상에 자본주의가 생겨난지도 수백년을 헤아리고있지만 자본주의는 아무리 미화분식하여도 인민대중의 무덤으로밖에 달리 될수는 없다. 주체의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락원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원쑤들의 갖은 모략과 날조, 악랄한 비방중상도 사회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의 마음을 흐려놓을수 없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이 있고 불패성이 있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최고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오늘날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는 놀라운 현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오염된 정신적불구자, 타락분자, 저속한 인간들이 날로 늘어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간개조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여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들로 교양육성되고 청년들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숭고한 서사시와 더불어 우리 식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고있다. 과학기술은 집단주의사회에서만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전민교육체계와 교육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배움의 활무대이며 과학기술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대군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밑에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국산화, 현대화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고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 최대로 발양되는 속에 과학의 기관차에 의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우리 당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것이다.

김 철 학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태양의 위업은 영원불멸하리

뜻깊은 새해를 맞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새해가 밝아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크나큰 격정을 안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향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끝없이 흐르고있었다.

어찌하여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달리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우리의 취재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가는 로상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것은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인 최철동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새해의 첫인사를 드리고 태양의 축복속에 명절을 보내고싶은것이 우리모두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흘러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만이 꽉 차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새해의 첫인사를 삼가 드리고싶은 천만군민의 열망을 알아서인가 대원수별이 빛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 돌대문도 활짝 열려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의하여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진 금수산태양궁전이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들어선 사람들의 발걸음은 먼저 궁전정면에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으로 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는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이 안겨들었다.

한겨울이지만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끓어번지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와 만난 철도성 평양객차대에서 일하는 한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르며 지나온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귀중한것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가장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전변들을 목격하면서 수령님들께서 하라고 하신것은 철의 진리이며 승리의 담보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새겨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우리를 뜨거운 추억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얼마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나날이 이 땅에 성스럽게 흘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걸어온 날과 달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혁명의 수령이 어떻게 인민과 더불어 영생하는가를 알게 해준 뜻깊은 나날이기도 하였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하여 투쟁해온 지난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그 불길속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우에는 웅장화려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땅속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지 않았던가.

조선인민내무군의 한 군관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끊임없는 전선길을 걸으시며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속에 태양의 위업을 총대로 빛내여가는 제일기수의 사명과 본분을 억척같이 새겨주시였기에 우리 병사들은 조국보위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도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우에 수령영생위업의 위대한 경륜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장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가 그대로 씨앗이 되고 열매로 맺어졌기에 내 조국땅에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정녕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절세위인들과 천만군민이 지나온 한해와 희망찬 미래를 두고 마음속대화를 나누는 태양의 성지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가시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으로 하여 더욱 뜨거워졌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철석의 맹세로 불타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흥분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 달려온 어느 한 중앙기관 일군의 불같은 결의는 우리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리정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은 우리가 지나온 투쟁을 통하여 체득한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여나가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우리 일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습니다. 저는 뜻깊은 올해의 대진군에서 멸사복무의 정신을 안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런 신념의 맹세를 그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공들의 투쟁기풍, 일본새를 적극 따라배워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가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밀어나가는 선각자가 되고 기수가 되기 위하여 학과학습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겠습니다.》

해마다 태양의 성지를 찾는 사람들은 천만이지만 그들의 심장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성스러운 이 땅, 이 하늘아래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철석의 의지와 신념으로 고동치고있었다.

그래서인가 대원수별을 옹위하여 서있는 군기수들을 형상한 군상과 나팔을 부는 녀성취주악대군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기념비, 승리의 상징으로 더욱 숭엄하게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격정속에 삼가 더듬어보게 하고 그 위대한 품에 안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을 뜨겁게 덥혀주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의 위업은 력사에 길이 빛난다는 철의 진리를 뜨겁게 새겨안았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오늘도 래일도 이 위대한 진리를 천만군민의 심장에 새겨주며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을 뿌릴것이다.

글 강 원 남
사진 본사기자 신 충 혁

새해의 첫 진군길에 비약의 불바람 휘몰아친다

달리자 승리의 5월을 향하여 더 빨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철의 기지 황철이 끓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승리의 5월을 향하여 최대속도로 내달리고있다.

선행공정의 로동계급 산소, 석탄, 부원료보장에서 혁신!

산소열법에 의한 선철생산장성!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어머니당대회를 승리적으로 맞이하자고 호소한 선구자들의 힘찬 진군의 보폭, 여기에는 자립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다져 당의 령도를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불보다 뜨거운 심장의 열도가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철의 기지의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좋다. 그러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새해진군길에 오른 황철로동계급의 미더운 투쟁모습을 볼수 있다.

선구자들의 투쟁목표는 명백하다. 초고전력전기로의 현대화와 100% 우리의것으로 완성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의 도입, 대형산소분리기와 합금철로건설에 이어 산소열법용광로의 우렁찬 통음을 안아온 경이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중량페루를 비롯한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다.

원료보장단위들에서 치렬한 증산돌격전이 벌어지고있다.

석탄과 철정광을 무드기 싣고 연방 들어서는 대형화물자동차들, 용을 쓰며 분주히 오고가는 대형삽차들이 촘촘듯 흘러가는 원료장의 콘베아를 배경으로 철의 기지의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불리한 겨울철조건으로 원료보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할 정황이 조성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황철로동계급은 일군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텁게 얼어붙은 원료를 까내며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쇠물남비보장이 늦어질때에는 교대가 따로 없이 내화벽돌축조와 운반작업을 도와나섰다.

선행공정이 앞서나가니 뒤공정들이 기운차게 돌아가고있다. 산소열법용광로와 초고전력전기로에서 장쾌하게 불의 대하, 대형산소분리기의 우렁찬 통음, 필승의 신심에 넘쳐 새해진군길에 오른 로동계급을 축하하여 손에손에 꽃다발들과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들고 달려나온 황철의 녀인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로 철의 도시 전역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받아안고 떨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은 조종실마다에서도 그대로 느낄수 있다.

여러명의 조작공들이 매 공정상태를 예리하게 살피며 집채같은 용광로와 대형산소분리기, 초고전력전기로들을 운영하고있다. 콤퓨터화면들에 공정상태를 보여주는 수자가 현시되고 파란 신호등들이 깜박인다. 기동적으로 정황처리를 해나가는 조작공들의 얼굴마다에 높은 책임감과 오늘생산계획은 문제없다는 확신이 력력히 비껴흐른다.

연방 전화종소리가 울려온다.

《조업상태가 어떤가?》

《좋다. 쇠물을 뽑아내고 련속장입에 들어갔다.》

《산소의 시간당 생산량과 순도는 정상이다.》

…

련합기업소생산종합지령실과 매 공정조종실의 조작공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이다.

대형콤퓨터화면으로 산소열법용광로와 초고전력전기로, 련속조괴장의 흐뭇한 광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다른쪽에는 대형산소분리기며 련판공정들의 생산실태가 손금보듯 장악된다. 그것을 보느라니 승리의 5월에로 향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추동할 강철기둥이 움씰움씰 솟구치는듯싶어 흥분으로 가슴이 달아오른다.

우리는 종합지령실에서 새해전투지휘로 드바쁜 련합기업소 지배인 김충걸동무를 만났다. 그는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환희와 격정속에 받아안은 황철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지금 비상한 열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선구자들의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며 올해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렬한 화광에 붉게 물든 철의 기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귀전에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수령님 다녀가신 철의 도시에
이 밤도 송이송이 눈이 내리네
쇠물보다 뜨거운 충성의 마음
…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함께 부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진다.

폭포처 쏟아지는 저 쇠물은 용해공들의 티없이 맑고 쇠물보다 뜨거운 충정에 의하여 끓여지는것이라고, 어머니당대회를 승리적으로 맞이하자고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호소한 선구자들의 과감한 투쟁에 의하여 나라의 강철기둥은 더욱 굳건히 다져질것이라고.

글 본사기자 전 성 삼
사진 본사기자 리 동 규

현지보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직장들에서

활화산마냥 타오르는 애국충정의 불길

여기는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과 2직장이다.

지금 이곳 전투장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감격과 환희속에 받아안은 조작공, 운전공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활화산마냥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발전소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육중한 보이라가 기운차게 용을 쓰는 속에 일군들도 로동자, 기술자들도 하나가 되여 일손마다에 창조와 혁신의 불꽃을 날린다. 새해첫 전투의 진입과 함께 힘차게 울리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방송선전차의 화선선동에 고무되여 증기생산을 부쩍 늘여나가는 이 직장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일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았다.

거센 열기를 내뿜는 보이라앞에서 일손을 다그치던 조작공도 운전공도 삼가 옷깃을 여미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들으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인민들에게 새해의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며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정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기를 축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이들의 심장마다에 전력생산성과로 당중앙을 옹위할 신념의 메아리가 울려퍼졌다.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며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열생산1직장과 열생산2직장의 로동계급은 공업의 기본동력을 책임졌다는 높은 사명감을 간직하고 어머니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전력생산전투에 진입하였다.

전투장마다에 더 높은 전력증산성과로 조국의 륭성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맹세가 담긴 힘있는 글발들이 나붙고 중앙예술단체성원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올리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현장을 들었다놓는다.

《6호보이라 송풍, 배풍상태 좋다. 증기압력 정상!》

교대장앞으로 보이라의 가동상태를 알리는 보고가 련이어 들어온다. 생산지휘소를 전투현장으로 옮긴 련합기업소책임일군과 직장장들의 눈길이 조작반의 계기들을 주의깊게 살핀다. 각종 신호등들이 깜박이는 속에 모든 계기판의 바늘들이 정상상태를 가리킨다.

《미분탄공급량 증가. 송풍기의 회전수를 보장하라.》

석탄의 질과 변화되는 날씨조건에 맞게 새로운 지령이 떨어진다.

새해 첫날전투부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증기생산량을 훨씬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는 조작공들이 해당 설비들을 숙련된 솜씨로 조종한다. 운전공들도 보이라에 사소한 이상요소가 나타날세라 침착하게 구석구석 살피며 순회점검을 깐지게 해나간다.

밖에서는 추위가 변덕을 부리고 생산에서 여러가지 난관이 있지만 순간의 주저나 답보도 없이 애국충정의 한길로 과감히 줄달음치는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슴가슴은 보이라의 화실마냥 끓어번진다.

《지금 모두가 증기를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하려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봉장혼을 부르고야말겠습니다.》

첫날생산실적을 묻는 우리에게 열생산1직장 직장장이 확신성있게 하는 말이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전력증산에 이바지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인양 보이라의 숨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높아간다. 활화산마냥 타오르는 이곳 로동계급의 애국충정의 불길이 그대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으로 되여 자랑찬 전력생산실적으로 줄기차게 이어진다.

본사기자 리 영 민

강선의 로동계급 첫날 전투목표 빛나게 완수

강선의 로동계급이 희망찬 새해 주체105(2016)년 첫날부터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일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가슴에 받아안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산투쟁에 떨쳐나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당의 구호를 로동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고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생산현장들에 높이 울려퍼지였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강철증산으로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이어 나라의 맏아들, 주체혁명의 핵심력량으로서의 력사적사명을 다해가려는 이곳 로동자들의 열의가 모든 작업장들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지였다.

강철직장의 용해공들이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해나갈 드높은 기세로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1일 초고전력전기로들에서 우리 당에 드릴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는 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정의 분출인양 잘 익은 쇠물이 장쾌한 불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져내렸다.

승리의 5월을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용해공들과 련속조괴작업장 로동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새해 첫날 전투목표가 빛나게 완수되였다.

혁명의 전환적인 시기마다에 열리였던 당대회들을 일심단결의 위대한 승리로,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로 빛내여온 우리 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이 차넘치는 보산제철소에서도 회전로들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강철준비직장, 주원료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 직장 로동계급도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대주어 강철생산에 기여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드높은 열의를 안고 계속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동승기

새로운 위훈을 부르는 기적소리

서평양기관차대 《붉은기》6020호를 타고

화차마다 석탄이 무둑히 쌓이고 조구에서 석탄이 폭포처 쏟아져내리는 여기는 2.8직동청년탄광 저탄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더 많은 석탄증송으로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 신심드높이 화력탄수송전사들이 새해전투에 진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새해의 청신한 공기를 헤가르며 기적소리가 울린다.

《붕—붕붕—》

제동검사를 방금 마친 《붉은기》6020호 기관차가 탄부들의 뜨거운 마음을 화차마다에 싣고 수도 평양의 동력기지를 향하여 떠난다.

《출발!》

기관사 김성민동무가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제어기를 천천히 당긴다.

우람한 8축전기기관차가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철원이 철길에 이상이 없다고 푸른 기발을 들어 통과신호를 보낸다. 직동역을 떠난 기관차가 점차 속도를 늦춘다. 구배가 심한 직동고개가 나타난다.

100t화차 차량들이 앞으로 쏠리며 철커덕소리를 내며 기관차에 힘이 가해진다.

제동변을 한번 돌릴 때마다 차바퀴들에서는 아츠러운 소리가 울린다.

《운행구간에서 제일 어려운 구배가 바로 이 직동고개입니다. 그래서 제동시험을 다시 해보고 첫 구간부터 속도조절을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승무조원들과 운행길에 오른 일군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제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관사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모습이 엿보인다.

어려운 경사구간을 안전하게 내려온 기관차는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흰눈덮인 산과 들을 지나 여러 역들을 통과한다.

역들에는 동발목을 가득 실은 화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고 눈덮인 농장벌이 스쳐지나간다. 굽인돌이를 돌 때면 앞뒤감시를 하던 기관조사가 차량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귀맛좋게 말한다. 《뒤 좋음!》 기관사도 흐뭇하게 반복한다. 《뒤 좋음!》

어느덧 기관차는 순천지구를 뒤에 남기고 크고작은 역들을 계속 통과한다. 운행상태를 감시하던 기관조사 림경준동무가 앞을 바라보더니 웃음을 띤다. 같은 대대의 전기기관차 《붉은기》6044호가 마주 보인다. 짧은 어김순간이지만 서로의 증송경쟁을 약속하는듯 승무조원들사이에 의미있는 눈인사가 오간다.

《우리가 더 많은 석탄을 실어날라야 전기가 팡팡 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전기를 나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행한 일군은 늘어나는 석탄생산량과 공장들의 벅찬 숨결, 도시의 불밝은 창가들을 볼 때마다 수송전사의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진다고 이야기한다.

어느덧 집중수송렬차는 수도 평양을 가까이한다.

《붕—붕붕—》

화차마다 석탄을 가득 싣고 행복의 노래소리 높은 창가마다에 불빛을 더해주고 증산의 열의로 들끓게 될 공장, 기업소들에 활력을 부어주며 승무조원들도 환희의 새해인사를 보낸다.

전 혁 철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 신년경축음악회 진행

주체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 신년경축음악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1월 1일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공연장소는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들과 경이적인 성과들로 사회주의강성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친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를 안고 희망찬 새해를 경축하는 뜻깊은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관람자들로 련일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화하고 전설같은 기적들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누리에 떨쳐온 승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총직하게 받들어가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로동계급을 비롯한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태양의 축복속에 휘황히 밝아온 새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더욱 빛나게 실현될 강성부흥의 려명인양 서곡 《종소리》, 《설눈아 내려라》로 공연은 시작되였다.

무대에는 녀성중창 《조국찬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4중창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 녀성5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녀성2중창 《인정의 세계》, 경음악 《복받은 인민의 노래》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한해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위대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애국애민의 세계, 천추만대에 길이 전할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절세위인에 대한 숭엄한 흠모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으로 인민의 모습을 빛내여주고 인생의 영광을 안겨주는 참다운 삶의 은인, 위대한 어머니당을 칭송한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조선로동당 만세》를 비롯한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관람자들은 당의 령도밑에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으로 빛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70년사를 긍지높이 총결하고 전설같은 기적들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누리에 떨쳐온 승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어머니당의 멸사복무의 정신이 펼쳐준 천지개벽의 새 력사, 황금해의 새 력사를 담은 경음악 《바다 만풍가》, 경음악과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얀을 위한 경음악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전변되는 내 조국의 약동하는 모습을 특색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새롭게 형상한 녀성독창과 방창 《사랑의 빛발》, 녀성2중창 《운명의 손길》은 천만의 가슴마다에 따스한 정을 부어주시고 기적의 힘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품에 운명을 맡기고 한생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절절하게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과 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며 강성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롭고 친근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지자 장내에는 열광의 박수소리가 터져오르고 끝없는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위용떨쳐갈 열혈청춘들의 전투적기백과 랑만을 반영한 경음악과 노래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녀성2중창과 방창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녀성중창 《타오르라 우등불아》와 같은 곡목들로 하여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경음악 《더 높이 더 빨리》, 경음악과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승리의 5월을 향한 대고조진군길에서 새로운 천리마, 만리마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날에날마다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애국에 불타는 심장들에 투쟁의 맥동, 비약의 열정을 북돋아주었다.

무대에는 《앙산도》, 《모란봉》 등 우리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흥치나는 민요들도 올라 신년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녀성가수들의 개성적인 목소리가 우리 식 경음악의 특색있는 울림과 황홀하게 조화된 공연,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생신한 공연은 장내를 격동과 흥분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장약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새해의 진군가로 격조높이 울린 공연은 종곡 《설눈아 내려라》로 끝났다.

관람자들은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의 뉴대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을 과감히 뚫고헤쳐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안아오고야말 혁명적의지를 백배해주는 신념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따라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의 빛발아래 우리의 앞날은 더욱 눈부시리라

지난 한해사이에 태여난 뜻깊은 시대어들을 되새기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더욱 강성번영하고 문명해질 래일을 그려보는 우리의 가슴속에 세월을 주름잡으며 폭풍쳐달려온 지난 한해의 뜻깊은 나날들이 벅차게 되새겨진다.

참으로 못 잊을 2015년이였다. 매일같이 전해지는 새라새로운 꿈같은 소식들, 아직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눈부신 기적과 혁신으로 날과 달을 이으며 10년 맞잡이로 보낸 천지개벽의 한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얼마나 많은 시대어들이 태여났던가.

청년강국, 백두청춘대학, 선군청년문화, 영웅청년신화, 과학의 섬, 《이채어경》, 농장도시, 온실남새생산열풍, 현대화이자 국산화, 선군시대의 청춘어장, 전화위복의 기적, 《처녀어머니》, 애국과학자, 하늘의 꽃—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미처 다 꼽아보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명백히 할것은 이 모든 시대어들이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력력히 아로새겨진 지난 2015년을 상징하는 뜻깊은 부름들이며 여기에 보다 휘황찬란할 우리의 래일, 눈부신 미래가 함축되여있다는 그것이다.

조국의 미래와 혁명의 전도는 새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사회를 좀먹고 병들게 하는 자본주의사상문화, 생활풍조에 물젖어 변태적이며 이색적으로 변질되여가는 청년들로 하여 골머리를 앓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청년문제야말로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국사중의 국사라고 할수 있다.

허나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가.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를 돌아보시며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려준다.

발전소언제우에 올라서면 그가 누구이든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의 칼바람에 뚫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여라고 한편의 시를 읊으시듯 기쁨에 넘쳐 하신 그 말씀.

내 조국의 앞날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이 짧은 시어에 다 담아주신 그 뜻을 되새길수록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눈에 삼삼 어려온다.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얼어붙으면 썰매전, 발구전으로 수송로를 열어나갔고 차디찬 물속에서 온몸이 그대로 《얼음기둥》이 되여 레루를 떠받든 청년영웅들.

물속에서 타지도 죽지도 않는 새를 전설속의 불사조라고 일러왔다. 하지만 인류사의 어느 갈피에도 이렇듯 남먼저 얼음기둥이 되겠다고 저저마다 얼음장 떠도는 강물속에 뛰여든 청년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다. 그렇게 흘러간 나날은 정녕 한두해가 아니였다.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과 싸워이긴 한해한해가 그들모두를 전설속의 불사조도 상상 못할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강자,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웃음으로 헤치며 당을 따라 곧바로만 나아가는 시대의 영웅들로 어엿이 키웠다.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증명한 창조의 거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백두청춘대학의 졸업생들로 자래웠다.

이런 수백만 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세계를 압도할 휘황한 설계도,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미래를 마음껏 펼쳐나가고있는것 아니랴.

미래를 노래할 때 우리의 눈앞에는 과학의 섬, 우리 식의 특색있는 거리가 우렷이 떠오른다.

일찌기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특출한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며 어제와 오늘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하는 시대를 창조하시며 세상에 둘도 없는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누구나 알수 있다. 21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상징으로,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 기념비적걸작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과학의 힘으로 인민의 지상락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어떻게 건설해나가는가를 세계앞에 생동하게 뚜렷이 보여주고있음을.

우리 나라에 로력이 남아돌아가고 자재가 많아서 그렇듯 희한한 국보적인 건축물들을 일떠세운것은 결코 아니였다.

과학과 교육을 강성국가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중의 중대사로 내세웠기에 그처럼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대용단을 내릴수 있은것이였다.

하기에 우리 과학자, 교육자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현대화이자 국산화라는 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밑에 온 나라에 국산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그 숭고한 애국의 열풍, 비약의 열풍속에 이 땅의 수많은 공장들이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과 같이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들로 끊임없이 변모되여가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설비와 원료, 자재들로 세차게 울려나가는 만부하의 동음을.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들이 날고 땅밑에서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생산열풍이 일어번지는 그 환희로운 광경을 시시각각으로 목격하는 우리의 심정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우리의 바다가 황금해로 더욱 빛을 뿌렸다.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여 당정책을 결사관철한 바다의 정복자들, 우리 당의 어로전사들이 선군시대의 새로운 선경인 《이채어경》을 펼쳐놓았다.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고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 드높이 울려퍼지는 물고기풍년을 안아왔다.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던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만시름이 풀린다고, 정말 희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흐뭇한 풍경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환한 미소속에 그처럼 차디찬 물고기판대기를 두손으로 정히 안아보시였으랴.

그래서였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며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물고기풍경, 《이채어경》은 그리도 아름다운것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는 뜻깊은 부름과 더불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훌륭하게 개건되였고 장천땅에서는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 희한한 농장도시가 일떠섰다. 저 멀리 조국의 최북단에서는 불과 30여일사이에 건화위복의 기적을 노래하며 새로운 선경마을이 태여났고 락산만의 날바다에서는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연어들을 마음먹은대로 길러내는 그물우리양어장, 선군시대의 희한한 선경인 청춘어장이 펼쳐졌으며 온 나라에 온실남새생산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어찌 그뿐이랴. 만사람을 감동시킨 20살 난 《처녀어머니》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어떻게 결사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애국과학자들,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 불굴의 녀성혁명가들인 하늘의 꽃—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도 태여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업어주고싶다고 하시며 그리도 높이 평가해주신 이들의 숭고한 혁명정신, 애국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해 떨쳐나선 사람들의 대오가 날로 늘어나고있으니 조국의 래일, 다가오는 미래는 또 얼마나 아름다와질것인가.

지나간 어제를 돌이켜보고 다가올 래일을 그려볼수록 참으로 크나큰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뜻깊은 시대어들이다. 한자한자 그 뜻을 되새겨볼수록 약동하는 젊음으로 끝없이 번영할 조국의 모습, 세계를 향해 또다시 비약하며 노도쳐나갈 내 조국의 미래가 더욱 환희롭게 안겨온다.

지난 한해동안에 태여난 시대어들만 다 합쳐도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더욱 앞당기는 휘황한 설계도가 된다는 한없는 격정에 심장은 세차게 높뛴다.

하기에 이 땅의 천만군민은 당 제7차대회장을 향하여, 최후승리의 봉우리를 향하여 다시한번 비약하며 폭풍쳐 내달릴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가슴에 초석같이 새기고 조국력사에 특기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빛내이는 새로운 시대어를 끝없이 창조해가며 눈부신 미래를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한 총공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설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한경철

인민의 기쁨 넘치는 봉사기지

만수교고기상점에서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훌륭히 일떠선 만수교고기상점은 날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여기에서 맛좋은 물고기들과 소고기, 오리고기, 닭알 등에 대한 봉사를 받은 사람들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은 기쁨과 함께 더욱 풍족해질 사회주의 우리 생활에 대한 랑만과 희열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닭고기와 닭알을 안고 상점문을 나선 서성구역 남교동 17인민반에서 사는 한 할머니는 나라에서는 아들이 전력공업부문 로동자로 일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남먼저 불러주군 한다고 감격에 겨워하였고 동대원구역도시시설관리소 로동자의 안해도 우리 당이 인민에게 베풀어주는 은정이야말로 눈물겹도록 고마운것이라고, 그에 꼭 보답하겠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교육자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고마운 사랑을 이 상점에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다고 하면서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온 교육자들의 안해들의 목소리도 하나와 같이 감동에 젖어있었다.

지난해에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와 평양시 여러 구역의 상하수도관리소 등의 로동자가정들이 여러차례나 우선적인 봉사를 받았다. 그들모두가 사회주의 우리 제도는 정말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격정을 터쳤다는 이곳 일군의 이야기는 그대로 이 땅 어디서나 울리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의 끝없는 메아리였다.

평범한 가정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주는 인민의 봉사기지 만수교고기상점, 진정 여기에서도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건설의 나날에도, 준공의 날에도 이곳을 찾아오시여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은정에 떠받들려 나날이 흥하는 인민의 봉사기지이다.

지금까지 수천t의 상품을 봉사해주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언제나 애써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에도 인민들이 덕을 본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가 깊이 새겨져있다.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배인 최창옥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봉사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다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인민의 봉사기지에 새해 첫날부터 활짝 피여난 웃음꽃은 그대로 올해에 더욱 유족해질 인민의 행복한 삶을 비껴안은 희망의 웃음꽃으로 끝없이 만발하며 양력설을 보다 뜻깊고 즐거운 명절로 단장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이채롭게 펼쳐진 불장식

재령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하늘의 은하수가 그대로 내려앉은듯 황홀한 불장식으로 단장된 새해 첫날의 재령군 읍거리,

거리를 가로질러 뻗어나간 도로량옆으로 건물들의 건축미를 돋구어주며 여러가지 조명효과로 이채롭게 펼쳐진 불장식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모르게 탄성을 터뜨리게 하였다.

불장식을 대상의 특성과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한것이 읍거리의 밤풍경을 아름답게 하면서도 보다 친근감을 자아냈다.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들의 애국적열의로 하여 불장식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훌륭히 완성될수 있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는 군일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김제원농민영웅의 넋이 스며있는 자기 고장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빛내이려는 재령군인민들의 헌신의 땀방울이 그대로 스며있어 유난히 빛나는 읍거리의 불장식이였다.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자기 손으로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고향땅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이 고장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더욱 몰라보게 전변될 재령땅의 래일이 바로 저 불장식들에 그대로 어려오는것이 아니겠는가.

가슴부푸는 희망과 포부를 안고 불장식 아름다운 거리를 끝없이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이 땅우에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시려 인민을 위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가는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열정이 그대로 빛이 되여 아름답게 장식한 읍거리의 밤풍경에서 우리는 시대의 벅찬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온 나라 거리와 마을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변모될 밝은 앞날이 더욱 환희롭게 펼쳐질 새해는 얼마나 좋은가.

김성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할 굳은 각오와 혁명적열의에 가득차있습니다.》

무릇 사람들은 양력설날이 오면 자기의 희망과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무한한 기쁨과 행복속에 휩싸이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의 양력설날도 아름다운 설풍경을 그리며 찾아왔지만 받아안는 감흥은 참으로 류달랐다.

여느때없이 마음은 무척 흥그러워져 지난 한해 출근길에서 자주 만나던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설인사를 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귀여운 아이들을 싱큼안아 업어주기도 하며 나는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수도의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차를 타면 몇분안에 목적지에 가닿을수 있었지만 나는 떠들썩 웃으며 걷는 사람들의 물결에 섞여 이 몇해사이에 더욱 아름다와진 평양의 설경을 기쁨속에 바라보며 걸었고 눈사람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눈덩이를 굴리며 동심의 세계에 잠겨보기도 하였다.

무엇인가 열심히 토론하는 낯모를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동성을 하고나서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여있는 우리의 래일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고싶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이 어이 나 혼자의 심정이라고만 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위용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온 나라에 경축의 춤바다가 환희롭게 펼쳐지게 될 당 제7차대회의 그날이 새해의 첫날에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왔음에라야.

생각이 깊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시며 력사적인 첫 신년사를 하셨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세월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창조되였던가.

하늘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가 힘차게 달리게 되였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천지개벽, 천도개벽의 새 풍경을 노래하였으며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져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환희롭게 풍겼다.

강산이 변한다던 그 10년이 한해로 바뀌여져 세인을 경탄시킨 이 몇해사이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인민의 승리임을 가슴깊이 체험하였다.

자기의 손으로 마련한 사회주의문명의 주인공들이 되여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려온 인민, 그 인민이 최상급의 살림집들과 봉사기지들, 현대적인 공장과 농촌을 일떠세워 온 세계가 보란듯이 더욱 풍만한 문명을 누려갈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으니 어찌 그들의 가슴마다에서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일렁거리지 않을수 있으랴.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방방곡곡에 정중히 모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충정의 결의를 굳게 다지는 각계층 인민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달려 전례없는 혁신을 이룩하자고 약속을 다지는 온 나라의 가정들과 각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인민봉사총국아래 여러 식당들에서 평고기국수와 노루불고기를 맛보면서, 전국의 여러곳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인민이 주인된 이 제도를 몸과 맘 다 바쳐 지키고 빛내여갈 열의에 불타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희열에 넘쳐있는것인가.

나는 확언하고싶었다.

오늘날 이 땅에 밝아오는 1월 1일은 비단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과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새해의 첫날이라는 의미만을 안고있지 않다고.

이날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세계가 부러워할 최고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성취하고야말 천만군민의 의지를 더욱 백배로 다져주는 승리의 명절이라고.

그래서 위대한 태양의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의 양력설날의 정서는 그리도 정겹고도 가슴뜨겁고 격동적인것이다.

본사기자 방경찬

수필

양력설날의 류다른 정서를 두고

리창준동무 축하의 꽃다발을 받는 련못대대 대대장

—련못무궤도전차 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우리의 가정들에 화목과 정이 더욱 넘쳐나게 될 희망찬 새해를 축하합니다

감사의 노래 울리는 행복의 보금자리

미래과학자거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해마다 희한한 새 집, 새 거리에서의 양력설풍경을 가슴벅차게 펼치고있다. 올해에는 미래과학자거리의 대학교원들과 과학자, 연구사가족들이 그 주인공들로 되였다.

새해보다 한발 먼저 내린 흰눈이 대동강기슭의 유보도주변을 이채롭게 장식하고 대동로량옆의 연연한 나무가지들에 햇순같은 서리꽃을 보얗게 피워놓아 한결 설풍경이 나는 미래과학자거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갑게 새해인사를 나누군 하였다.

이 거리의 주인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같은 대학, 같은 단위에서 일하는 교원, 과학자들인데다가 또 그들을 찾아오는 학생들과 친지들까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많은지라 그런 화목이 쉬임없이 펼쳐지고있었다.

깎아지른듯 한 절벽을 방불케 하는 초고층아빠트며 외벽의 중심부위를 부푼 곡면으로 처리한 돛배형식의 살림집들, 물결모양 아빠트들의 황홀한 건축미에 반하였던 우리도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아빠트현관이나 길가에서 이곳 주민들이 따뜻이 주고받는 진심어린 축하의 말과 인사에 저도모르게 뒤돌아보군 하였다.

또 이런 인사말들도 있었다.

《새해에 더 많이 탐구하고 창조합시다.》

《최상의 설계를 당 제7차대회 선물로 드립시다.》…

그야말로 미래과학자거리의 풍격이 담긴 새해인사였다.

역시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다르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진 우리앞에 향긋한 버섯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는 보성버섯상점이 나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많이 생산하여 먹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이 구절구절 올려오는 상점안에 들어선 우리는 여러명의 녀인들이 금방 딴듯이 생생한 버섯들을 구럭에 넣어가지고 얼굴이 환하여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한 녀인은 생버섯에 여러가지 말린 버섯, 버섯가공품과 버섯진강음료까지 한가득 사들고 있었다.

우리가 집식구들이 버섯을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오늘 아침 우리 층에 사는 연구사가족들이 우리 집에 모여 앉았댔습니다. 새해축배를 들며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한결같이 결의하더군요. 우리 안해들은 세대주건강을 더 잘 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거리의 여러 가정들에서 펼쳐졌을 새해의 첫 아침풍경을 우리앞에 그려보이였다.

지난해에 새집들이를 하고 감격의 날과 달을 마감한 그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새해가 시작되는 아침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가슴끓이며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을것이다.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미래과학자거리대통로를 따라 걷던 우리는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30살의 젊은 교원인 로광명동무를 만나게 되였다.

그는 방금 자기와 한아빠트에 사는 스승의 집을 찾고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열백밤을 새워 탐구해도 못다 갚을것이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런 이야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평천구역 미래동 22인민반 3층 1호에서 살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교수 박사 리종락동무의 가정에서도, 미래과학자거리상징탑을 떠이고 선 전자자리길모양의 53층아빠트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김효숙할머니를 비롯한 과학기술전당 연구사가족들의 심장속에서도 울려나왔다.

대동강변을 따라 현대적으로 일떠선 미래공원과 실내오락장, 고층건물들아래에 즐비하게 자리잡은 갖가지 상점과 식당, 편의봉사망들에 넘치는것이 새해를 맞이한 기쁨의 웃음소리만이였던가.

기쁨과 즐거움속에, 행복의 노래속에 충정의 맹세가 더욱 억세여지고있었다.

흙바람 날리는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장에도 오시고 완공후에도 또 오시여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로고와 심혈을 가슴에 새긴 우리 과학자들의 심장이 뜻깊은 새해의 이 아침 어찌 용암마냥 끓어번지지 않을수 있으랴.

사회주의기관차를 억세게 몰아가는 주인공이 되여 더 많은 탐구와 창조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떠받드는 억척의 기둥이 될 신념이 그들의 심장마다에 뿌리내리고있었다.

어느덧 하늘가에 어둠이 깃들자 53층아빠트의 정점에서 미래과학자거리상징탑이 환히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온 거리에, 아니 온 나라를 향해 강렬한 빛을 발산하며 쉬임없이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새해에 더 많이 탐구하고 창조합시다!》

본사기자 허명숙

양력설명절을 맞으며 스승의 집을 찾아 축하해주는 제자들
—평천구역 미래동 61인민반 박승규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찍음

따거운 추억으로 보낸 하루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청년축산작업반장 박용철동무의 가정

서흥군 범안협동농장의 마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집이 있다.

《박용철》이라는 문패가 걸린 이 집에서 새해의 첫날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을 어버이로 모신 사회적대가정은 수령과 혈연적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가장 화목하고 단합된 혁명적인 대가정이며 혁명적대가정의 매 성원들은 수령의 참된 아들딸들입니다.》

박용철, 김성녀부부는 새해가 밝아온 아침부터 바빴다.

그도그럴것이 아침 일찍 마을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섰던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집에서 새해첫 명절을 즐기는것,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마을에서 어길수 없는 양력설명절일과로 되였다.

아직도 어버이장군님의 체취가 느껴지는듯 한 이들부부의 집에서 명절을 쇠면 장군님과 함께 명절을 쇠는것 같아 마음이 따스해진다는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마을사람들이 들고온 명절음식들을 펼쳐놓는데 주부인 김성녀동무가 줄당콩으로 소를 만든 송편과 여러가지 음식들로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차려놓았다.

《작업반장, 한마디 하라구.》 하며 눈빛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박용철동무는 뜨거움에 젖어 이야기했다.

어버이장군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이야기를, 어버이장군님께서 전기로 밥을 지어먹을수 있게 되면 편지를 써보내라고 다정히 일러주시던 일이며 집짐승도 많이 기르고 과일나무들도 심고 가꾸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시던것이며…

해마다 들은, 하여 누구나 제 집안의 일처럼 자다가도 일어나 자자구구 외울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열번, 백번 더 듣고만싶은것이 우리 인민의 마음이다.

박용철동무가 축축히 젖은 눈굽을 찍으며 말을 마치는데 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다.

《여기에 모였으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우리가 늦었구만. 녀맹위원장, 어서 한마디 하라구.》

성미가 팔팔한 관리위원장의 재촉에 김성녀동무가 입을 열었다.

《정말 친정아버지와 같으시였습니다. 집에 웃바람은 없는지, 부엌세간살이는 제대로 갖추었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알아보시며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실 때 저는 그만 〈아버지—〉 하고…

그날 우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잊을수 없어요.》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

누구라없이 이렇게 축사이며 축배잔을 높이 들고 새해의 맹세를 다지는데 이번에는 군당책임비서가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며 방에 들어섰다. 아마도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어린 집에서 양력설명절을 쇠고싶은 마음은 다 같은것 같다.

마을의 로인들에게 설인사를 하고난 군당책임일군이 자리잡고 앉으니 방안의 분위기는 더 화기로와져서 모두들 허물없이 한마디씩 했다.

벌써부터 논밭에 낼 두엄을 얼마만큼씩 장만했다는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도 좋고 학교시절 공부를 잘하여 7.15최우등상 수상자의 영예를 지닌 맏이 철성이가 입대하여 키도 더 크고 건강하여 군사복무도 잘하고있다는 주부의 이야기도 웃음속에 들고있는 책임일군,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들을 위한 충복으로 살 결심이 더 굳어졌으리라.

창밖에 저녁어스름이 깃들도록 박용철동무의 집으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없었다.

그날 저녁 박용철동무는 안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어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집에서 사는 긍지를 안고 새해에도 일을 더 잘하기요.》

정녕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 행복한 하루, 여기에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장군님을 잊지 못하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이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현경철

로동당세월이 좋아 어디 가나 웃음꽃 만발했네

행복의 말발굽소리

귀전을 스치는 바람소리, 말발굽밑에서 흩날리는 눈덩이들, 눈부신 설경우에 피여난 꽃송이들인듯 갖가지 승마복이 어우러진 모습들…

새해 첫날 미림승마구락부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은 얼마나 장관인가.

네굽을 안고 질주하는 말에 올라 신바람나게 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희열과 랑만에 한껏 젖어있다.

별안간 주로의 한쪽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웃음소리,

말안장에 오른 한 처녀가 열심히 박차를 가하지만 네다리를 떡 뻗치고 좀처럼 움직일념을 하지 않는 재빛말, 처녀라고 얕잡아보는것이라고 속짐작하며 힘껏 고삐를 채보았지만 말은 여전히 끄떡하지 않는다. 더욱 약이 오른 처녀의 얼굴은 홍당무우처럼 빨개졌다.

봉사원이 말곁으로 다가가 사뭇 엄한 기색을 지으며 《앞으롯!》 하고 구령을 친다.

봉사원의 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걸음을 내짚는 말우에서 와뜰 놀라며 고삐를 부여잡는 처녀의 새된 목소리에 또 한바탕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오른다.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보낸 이 하루의 소감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타고 백설광야를 달리는듯한 심정입니다.》

한바탕 주로를 달리고난 중년남성이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 터치는 말이다.

새해의 첫 기슭에 울려퍼지는 경쾌한 말발굽소리, 기쁨의 웃음소리,

진정 그것은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하려는 위대한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 행복의 메아리인것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도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힘차게 달려갈 인민들의 불같은 맹세를 싣고 행복의 말발굽소리는 더 크게 울려퍼진다.

본사기자 조경철

릉라도의 《명배우》들

릉라도의 《명배우》들인 곱등어들이 새 무대를 펼치였다.

1월 1일 11시, 새해의 첫 무대에 나선 《명배우》들에게 열렬한 박수가 보내여졌다. 아니 고무의 박수가. 그것들도 새해를 맞아 한살을 더 먹었으니 말이다.

평양의 한복판에 서해의 맑은 물이 흘러들고 릉라곱등어관의 《명배우》들이 우리 인민들과 첫인사를 한 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났다. 그 나날 곱등어들의 기교도 한결 늘었다. 새해 무대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기교를 보여주었다.

어린이의 손짓과 몸동작을 모방하는 기교를 보고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물안에서 곱등어들과 함께 조교동작을 수행하는 조교사들의 우아한 모습을 보고는 어른들이 감탄을 금치 못한다.

특색있는 조명과 새로 설치된 전광판들에 펼쳐지는 동화상들을 보며 황홀한 바다세계로 이끌려가는 관람자들.

《곱등어들의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관람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수도의 한복판에서 희귀한 바다동물들의 재치있는 기교동작을 보며 문명을 향유할수 있게 하여준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젖어듭니다.》

릉라곱등어관에서 일하고있는 김명성동무의 말이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겠는가. 새해를 맞은 우리 인민들을 축복해주는듯 곱등어들이 뿌리는 물보라가 특색있는 조명빛을 반사하며 무지개를 그리는 순간 관람자들은 저도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올린다. 아마도 그 무지개를 보며 보다 큰 기쁨과 랑만이 넘칠 올해의 날과 달들을 그려보았으리라.

신철

은반우에 넘치는 랑만

새해 첫날 맑은 물이 출렁이는 수조에서 물놀이하는 쾌감도 좋다. 눈가루를 날리며 말을 몰아가는 기쁨도 이를데 없다. 빙상장에서 스케트를 타고 내달리는 멋은 또 얼마나 좋은가.

양력설날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가족끼리, 동무들끼리 혹은 한개 학급이 통채로 빙상장을 찾았다. 스케트를 처음 타는듯 어기적어기적 몇걸음을 옮기다가 은반우에 통채로 주저앉은 녀성, 그런가하면 깜찍하게 작은 스케트를 타고 쌩쌩 달리는 어린이, 조를 갈라 스케트경주를 하는 청년대학생들…

인민야외빙상장, 그 큰 공간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꽉 차있었다. 새해를 맞이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언제인가 인민야외빙상장을 찾았던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나라에도 이런 빙상장이 있지만 값이 너무 비싸 평범한 사람들은 갈 엄두도 못내고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더라면 빙상장을 찾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을것이다.

자본주의가 억만금을 들여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회주의복이라고 한다. 그 복을 우리의 원수님께서 더 활짝 꽃피워주고계신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민야외빙상장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은반, 그것은 새해 우리 인민에게 안겨질 보다 큰 복을 들여다보게 하는 행복의 거울이였다.

본사기자 리경일

—중성꽃금붕어상점에서— 본사기자 찍음

—평양축하장기념품상점에서— 본사기자 찍음

—릉라곱등어관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평양 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뜻깊은 평양참관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다.

회의참가자들은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이며 태양민족의 만년재보인 국가선물관을 찾았다.

총서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혁명의 대성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온 겨레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는 선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는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끓어올랐다.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솟아난 릉라인민유원지에서도 회의참가자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릉라곱등어관에서 경쾌한 선률에 맞추어 수면우에 펼치는 곱등어들의 재주를 보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을 행복과 문명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시려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사냥경기, 오토바이경주, 판스키경주, 뽀트경주 등 이채로운 오락세계를 체험할수 있게 다양한 기재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전자오락판과 생동한 화면과 음향, 률동이 하나로 결합되여 사람들을 통쾌함과 아슬아슬한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릉라립체률동영화관에서도 그들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물고기잡이전투에서 군인들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폭풍처 내달림으로써 황금해의 새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갈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미림승마구락부 참관

새해의 첫날과 우리 생활

기다리는 마음

새해 양력설을 어떻게 보낼것인가.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계획은 서로 다르다. 누구나 즐겁게, 뜻깊게 보내려는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역시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세계이니만치 그나름대로의 정서와 랑만과 생활이 있는것이다.

새해를 맞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심정이 있다.

가정과 일터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기다리는것이다.

새해 첫날 선교구역 선교1동에 사는 전쟁로병 리정규로인의 가정에서도 그랬다.

텔레비죤을 마주하고 앉았던 전쟁로병은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뵙는 순간 너무 기뻐 두눈을 슴벅거렸다.

리정규로인은 이번에는 우편통신원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아는 리진숙녀성은 몇번이나 창밖을 내다보았는지 모른다.

이때였다.

《할아버지, 신문이 왔습니다.》

귀에 익은 우편통신원의 목소리가 울리자 신문을 받아든 로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여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실린 당보인것이다.

어찌 그들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심장속에 새겨안는 우리 인민인것이다. 바로 그 속에 우리 인민의 리상과 포부가 담겨져있기에.

본사기자 신현규

용광로앞에서 맞은 명절

새해의 기념품들을 든 사람들이 부모형제들과 친우들을 찾아 걸음을 옮기고있을 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 용해공들은 출선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송동무, 딸애가 섭섭해하겠구만.》

작업반장 차광혁동무의 이야기에 용해공 송윤일동무는 말하였다.

《다 리해할겁니다.》

《용해공의 딸이 아닌가.》

그 말에 모두들 가슴이 뜨거워났다.

용해공, 그 이름을 나라의 맏아들이라는 부름으로 안고 사는 이들이기에 남들이 새해의 명절을 즐길 때에도 쇠물이 이글거리는 용광로앞에 서있는것이리라.

드디여 출선구를 막은 점토가 뚫리자 새빨간 불꽃을 튕기며 쇠물이 용광로에서 폭포처럼 쏟아져나왔다.

주홍빛쇠물이 쇠물길을 따라 흘러나오자 순간 《야—》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용해장을 더 붉게 물들이는 불보라, 용해공들에게는 이것이 부모형제들과 친우들에게 아니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새해의 첫 선물인것이다.

그래서 새해 첫 교대를 꼭 자기들이 하겠다고 떼를 쓰다싶이한 차광혁동무와 그의 작업반원들이다.

《이런게 바로 용해공들의 명절이 아닌가.》

차광혁동무의 이야기에 용해장에 넘치는 웃음소리…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새해의 첫날은 이렇게 흘렀다.

본사기자 홍성철

새 생명의 고고성을 위해

제야의 종소리가 울린지 한시간이 좀 지나 평양산원 3산과의 해산실에서는 고고성이 울려퍼졌다.

《아들이예요.》

간호원의 목소리를 듣는 락랑구역 원암동에서 온 김미경동무는 기쁨의 눈물을 지었다. 그는 새해와 더불어 어머니가 되였던것이다.

그로부터 몇시간이 흘렀는지.

이른아침 김미경동무가 입원한 8호실로 담당의사 리영광동무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김이 문문 나는 미역국그릇이 들려있었다.

이어 생남도 새해도 다 축하한다며 밝게 웃으며 들어서는 간호원, 의사들.

새 생명의 출생을 위해 한밤을 밝히고도 그 모든 수고는 묻어두고 오히려 산모의 건강상태를 걱정해주는 그들앞에서 김미경동무가 한 이야기는 한마디뿐.

《고맙습니다.》

아기의 성장과 함께 그 말을 몇백번을 더 해야 할지 그가 알수 있다면.

우리의 새해는 늘 이렇게 밝아오는것이다.

리신향

일본의 범죄적책동을 비호하고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반민족적망동

친일굴종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담화 발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리동제가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남조선보수당국의 친일굴종행위를 규탄하여 지난해 12월 2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이날 서울에서 진행된 남조선과 일본사이 외상회의라는데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과거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고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며 온갖 비인간적만행을 가한 특대형의 국제적반인륜범죄행위이라고 담화는 규탄하였다.

담화는 지금도 성노예피해자들이 일본정부가 성노예범죄에 대해 국가적,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으로 피해자들의 짓밟힌 명예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성노예범죄를 부인하는것으로도 모자라 《매춘》으로 매도하여 반인륜적범죄행위를 미화분식해온 일본집권자의 국가적인 책임도, 법적책임도 밝히지 않은 《사죄》니, 《반성》이니 하는 말을 받아들여 성노예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였다고 하고있으니 이처럼 굴욕적인 친일외교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고 담화는 단죄하였다.

담화는 일본당국이 마땅히 국가적으로 해야 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남조선당국이 재단을 만들어 하도록 한것자체가 주객전도라고 폭로하였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을 옮기라는 일본당국의 요구를 고려한다고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가슴에 칼질까지 하였다고 담화는 비난하였다.

더우기 결코 남조선에 한한 문제가 아닌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의 과거죄악의 총결산과 관련된 성노예문제를 최종해결이니 뭐니 한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담화는 규탄하였다.

남조선단체들과 국제기구 성명 발표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원불교녀성회, 기독교장로회녀교역자협의회, 녀성단체련합, 녀성민우회를 비롯한 20개의 녀성단체 그리고 전쟁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로동자전국회의, 참여련대, 전국농민회총련맹, 진보련대, 청년련대, 대학생련합, 전국빈민련합을 비롯한 90여개의 각계 단체와 국제대사령 남조선지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남조선당국의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날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데 대해 밝혔다. 그러나 성노예범죄가 일본의 정부와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범죄라는 점을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본정부가 성노예범죄에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하였다는 사실과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수상이 정부를 대표하여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하여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정부가 가해자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그리고 일본내에서 해야 할 성노예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력사교육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성명은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내건 약속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비난하였다.

당국이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것으로 확인하고 일본대사관앞의 평화비(소녀상)문제의 해결, 호상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자제를 선언하였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당국의 대일외교는 가히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에 림하면서 평화비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것도 모자라 앞으로 성노예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계가 성노예문제해결과 평화를 웨쳐온 수요집회의 정신을 떨치는 력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피해자들은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동안 노력한 관련단체들과도 아무런 토의나 동의를 구한바 없이 굴욕적《합의》를 하고도 《최종해결》이니 뭐니 하는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피해자들을 다시한번 커다란 고통에로 내모는 일이다.

성노예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국민의 요구는 일본정부가 과거범죄에 대해 국가적, 법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합의》는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군성노예문제는 피해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여야 할 우선적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우듯 매듭지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책임리행이 반드시 실현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피해자들, 해내외시민사회계와 함께 옳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낱낱이 드러난 역적배들의 추악한 정체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놓고 일본과 외교장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그 뒤끝에 남조선당국은 회담결과를 서둘러 공포하면서 일본과의 그 무슨 《합의》에 대해 떠들어댔다.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합의》라는것을 통해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무마시킨것은 백년숙적에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친일역적행위이다.

이번 회담이라는것이 얼마나 엉터리없고 굴욕적인 회담인가 하는것은 그 내용을 보면 똑똑히 알수 있다. 일본당국은 《위안부지원재단》에 몇푼의 돈을 뿌리는 대가로 남조선당국에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강요하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코 《배상》은 아니라고 내놓고 수작질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에 대한 력사적책임과 사죄, 배상의 법적의무를 전면거부해나섰다는것을 말해준다. 언론들이 《한손으로는 악수를 하고 다른 손으로는 뺨을 때리는 형국》이라고 개탄한것은 우연치 않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을 옮기며 국제무대에서 저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등 일본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의다 들어주었다. 이 얼마나 쓸개빠진자들인가.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처사는 뿌리깊은 친일매국근성의 발로로서 일제에 대한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속상처에 재를 뿌리는 망동이며 일본의 과거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적존엄을 되찾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을 짓밟아버리는 추악한 반역행위이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이번 회담결과에 토대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할 기도를 드러낸것이다.

회담후 남조선당국은 군부를 내세워 앞으로 일본과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우선 협의해나갈것》이라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호상군수지원협정의 체결가능성》에 대한 여론을 흘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런 무분별한 망동이 미국의 부추김밑에 일본을 등에 업고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침략하기 위한 반민족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번에 벌어진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외교당국회담은 미국의 배후조종과 각본에 따른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회담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누구보다 쌍수를 들어 패재를 올리고있는것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미행정부가 북침을 위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고 주구들을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타산으로부터 그에 장애로 되는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타결짓도록 남조선당국에 계속 압력을 가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회담이 벌어지고 그것이 온 민족을 격분시키는 그 무슨 《합의》로 이어진것은 미국의 개입책동과 절대로 떼여놓고 볼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한 일본과의 《대응방안협의》를 운운하고 지어 일본반동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호상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려 하는것은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조작을 위한 미국상전의 계책에 극구 맞장구를 치면서 북침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의 백년숙적과 거리낌없이 공모결탁하는 반역도배들의 망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은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무리를 두고두고 저주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을사오적을 찜쪄먹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노들이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역적들의 이번 추태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분노를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매국역적행위도 서슴지 않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천벌을 맞아 마땅하다.

우리 민족은 친미친일에 명줄을 걸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는 반역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것이며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야말것이다.

박 철 준

가증스러운 일본, 치욕스러운 이남《정부》

남조선언론이 단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최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굴욕적으로 타결한 당국의 죄행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명백히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녀성으로서 말못할 치욕을 겪어야 했던 성노예피해자들의 문제에 관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과 남조선《정부》가 협상을 강행적으로 타결한데 대해 밝혔다. 그 협상안을 보니 억이 막혀 한탄을 금할수 없다고 글은 개탄하였다.

협상안은 대충 보기만 해도 문제투성이로 되여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이 관계되여 성노예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하지만 전문을 뜯어보면 《관여하에》라고만 되여있을뿐이다.

군이 강제징집하지 않았는데 녀성들이 몸을 팔아 돈을 벌려고 군부대주변에 온것을 일본군이 리용했다는 식의 지금까지의 악의적변명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있는것이다.

이런 여지를 없애려면 피해자할머니들이 요구했듯이 일본군이 직접 관련부서를 두고 점령녀녀성들을 강제징용했음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담겨져야 한다. 그런데 이 핵심사항이 빠진것이다.

사죄도 그렇다. 무슨 사죄를 범죄자마음대로 한단 말인가.

피해자할머니들은 일본의 최고위급이 사죄문을 들고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것이다. 사죄를 받을 권리와 형식은 피해자가 정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죄는 가해자인 일본정부에서 종이장의 합의문 하나만으로 사죄한다고 표명하고 끝내버린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죄에 박근혜《정부》가 서명을 한것이다.

가장 문제로 되는것은 겨우 얼마 안되는 돈을 배상금이라고 내놓는데 대해 성노예범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고 서명을 한것이다. 성노예문제는 돈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에 관한 문제, 피해녀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시키는 문제가 더 중핵적이다. 이렇게 중심문제가 엉망으로 합의되다보니 피해배상문제도 엉망진창이다.

일단 배상금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 가해자가 국제법적책임도 인정하지 않은채 돈을 준들 존엄회복이 과연 되겠는가.

성노예피해자는 숨진 할머니들까지 합치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들의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까지 생각하면 모두 찾아서 배상해야 당연하다.

이들모두에게 얼마 차례지지 못할 돈으로 무슨 《상처치유》요, 《존엄회복비용》이요,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해결된것》이요 하며 요란을 떠는 일본정부의 행태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는 일본정부의 립장에서 볼때 거지들에게 돈 몇푼 던져주며 《귀찮게 굴지 말고 제발 이제는 우리 집근처에 오지 말라.》고 하는 짓거리와 다를바 없는 행태이다. 이런 일본의 요구에 서둘러 서명을 한 박근혜《정부》도 참으로 치욕스럽기 그지없다.

이따위 돈 몇푼 받아내고서 다시는 일본정부에 성노예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것이며 일본대사관앞 소녀상도 사실상 철거하겠다고 서명을 하였다니 정말 이남《정부》인지 일본우익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도무지 분간할수 없다.

성노예피해자들은 이번 협상안을 전면무시한다고 선언하였다. 지금 국제전문가와 이남의 언론들은 《한》, 미, 일사이 군사협정을 시급히 추진시키기 위해 《위안부》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는 미국의 입김이 이번 협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있다.

사실 성노예범죄문제는 급한쪽이 일본이다. 성노예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일본은 영영 반인권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사죄와 배상책임이 없어지는것도 아니다. 일본이 유엔기구에 진출하려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성노예문제를 들고일어날것이 자명하다.

일본은 영영 정상국가로 살수 없는 비도덕적, 반인륜적범죄국가로 락인찍히는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과의 어떠한 론의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서둘러 타결을 보았다.

얼마간의 위로금을 받아냈다고 생색내기를 하면서 서두르고있는데 누가 보아도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임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일제에 의한 수십년간의 식민지치욕도 너무도 분통터질 일이여서 참을수 없는데 왜 21세기에도 일본과 미국의 입김에 이남《정부》가 질질 끌려다녀야만 하는지 슬픔과 분함을 금할수 없다.

민족적존엄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이 썩어빠진 사회에서 숨쉬는것조차 역겹고 고통스럽다.

정말 12월 28일의 치욕은 참을수 없다.

본사기자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지난해 12월 29일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에서 비굴하고 굴욕적인 당국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일제에게 《충성혈서》까지 써바쳤던 친일파 박정희가 일본과 굴욕《협정》을 체결하였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 그의 딸이 또다시 굴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죄하였다.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 이런 비통한 현실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하고 얼마나 더 분노에 치를 떨어야 하는가고 글은 개탄하였다.

남조선당국과 일본이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문제에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여기서도 일본은 잃은것이 없으며 기존립장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글은 밝혔다. 글은 일본이 성노예범죄에 대한 법적책임, 도의적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강제성이라는 표현을 빼놓았다고 단죄하였다. 이번 《합의》에서는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범죄라는 성노예문제의 본질적내용을 찾아볼수 없으며 일본이 지원한다는 돈도 배상금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치유금》이라고 글은 폭로하였다. 글은 이것은 일본이 돈을 줄테니 입다물고있으라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에서 중요한것은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이라고 하면서 이번 《합의》는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고 글은 까밝혔다.

글은 국제인권단체들도 이번 《합의》가 일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거래라고 밝혔다고 강조하였다. 민족적자존심마저 저버린 《합의》는 3각군사동맹을 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번 《합의》를 체결한 당국자의 《국적》은 어디인가고 글은 규탄하였다.

과거죄악에 대한 법적책임 외면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남조선단체 항의행동 전개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일본과 남조선당국사이의 정치적야합책동을 규탄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에서 항의행동을 벌렸다. 외교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와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인 굴종행위를 단죄하였다.

단체는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성노예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할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돈 몇푼으로 과거범죄를 덮어버리려는 몰렴치한 행태라고 규탄하였다. 이미 2012년 남조선대법원이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및 배상회피를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것으로 판결한것은 일본과의 《협정》을 폐기하고 일제식민지지배의 과거사를 하루빨리 청산할것을 요구한것이라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일본의 과거죄악과 관련한 량측의 야합은 군사적결탁의 강화와 일본의 조선반도재침략을 더욱 부추기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범죄를 무마해준 《정부》는 민족적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는 평화행동을 벌렸다. 참가자들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법적책임 외면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불법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부정하고 〈한〉반도재침략 노리는 일본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힘차게 웨쳤다.

발언자들은 일본정권과 정치적으로 야합하여 성노예문제를 졸속적으로 처리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하면서 이번 《합의》는 전면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언론들이 성노예문제가 갑자기 해결될것처럼 보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결국 성노예피해자할머니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결과가 빚어지고있다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은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및 배상에 대한 국가적, 법적책임을 묻고 조선반도재침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정부》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

로씨야대통령 서방의 도전들에 당당히 맞서나갈것을 강조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새해 2016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그는 지난해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선렬들의 경험과 어려운 시기에 발휘된 그들의 단결력, 정신력은 로씨야에 있어서 위대한 모범으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력사와 경험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로씨야가 앞으로도 현대서방의 도전들에 당당히 맞설수 있도록 고무해줄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새해를 맞으며 국제테로와 싸우며 머나먼 타향에서 국가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의지와 결단성, 완강성을 보여주고있는 군인들을 축하하고 그는 로씨야인민모두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들에서의 새해맞이풍습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고있으며 새해명절을 쇠는 풍습 또한 각이하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한해를 마감짓는 12월 31일 밤을 크게 쇤다. 1월 1일에는 대체로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모여앉아 명절을 보낸다.

오스트리아의 윈에서는 새해 전날밤을 크게 쇤다. 이날밤에 윈에서는 모든 거리와 골목 그리고 술집, 극장 등에서 공연이 진행된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인기가 있는것은 가극이다. 윈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제기되였다고 하더라도 새해 전날밤에는 이름난 극장에 가서 꼭 가극을 구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새해 전날밤 특색있는것은 많은 사람들이 18세기에 주조한 《세계의 종》의 장엄한 종소리를 듣기 위해 원중심에 있는 한 광장으로 모여드는 광경이라고 한다.

뻬루의 꾸스꼬 등지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떼마쓰깔》한 증이라는것을 하며 명절을 보낸다. 《떼마쓰깔》이란 나무로 지은 작은 집을 천으로 감싼것을 말한다. 그들은 여기서 어지러운것들을 씻어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면 다시 살아난것과 같다고 생각하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민물호수인 바이깔호의 주변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이하면서도 위험한 놀이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 놀이는 다름아닌 잠수이다. 직업적인 잠수공들이 두터운 얼음을 까고 40m깊이의 물속에 들어가서 호수밑에 장식용나무를 가져다놓으면 100여kg의 무거운 잠수기구를 착용한 다른 잠수공들이 나무주변을 돌면서 춤을 춘다고 한다. 현지주민들은 1982년부터 이렇게 새해맞이를 하고있다.

칠레의 어느 한 소도시에서는 새해 첫날에 공동묘지를 찾는다. 밤 11시경에 시장이 공동묘지의 대문을 열어주면 이와 동시에 우아한 고전음악이 울리는데 사람들은 일가친척들의 묘지들을 찾아간다. 그들이 새해에 공동묘지를 찾아가는것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명절을 함께 쇠기 위해서라고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는것이 아니다. 민족풍습 등에 따라 정한 날들을 새해로 맞이하는 나라들도 있다.

4월이 정월로 되여있는 어느 한 동남아시아나라에서는 나흘동안 물놀이를 진행하며 새해명절을 보낸다. 물놀이는 한해동안의 더러운것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명절옷차림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남녀젊은이들이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과 서로 물을 뿌려줄 내기를 한다. 물놀이에는 소방용호스, 물총, 물통 등 물을 담을수 있는 갖가지 기구와 그릇들이 총동원된다고 한다.

아프리카동부의 어느 한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통용되고있는 율리우스력으로 새해명절을 쇤다. 이날에 사람들은 울긋불긋한 치장과 차림을 하고 여러가지 놀이를 하며 즐겁게 쇤다. 이 나라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은 새해에 복을 누리자면 그믐날 가까이에 있는 개울이나 련못에서 꼭 목욕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이 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설을 두번 쇤다고 한다. 두번째로 쇠는 설은 12월의 마지막날이다.

김 국 철

물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수 없다. 세계의 고대문명발상지들이 모두 거대한 강류역들이였다는 사실은 물이 인간의 발전과도 밀접히 결부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물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로 되고있다.

이전에 사람들은 《물처럼 흔하다.》는 말을 자주 외웠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물부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 오늘날 이 말은 맞지 않는것으로 되였다. 지금 물위기는 환경위기, 식량위기와 함께 인류를 위협하는 3대위기의 하나로 되고있다. 걸면의 3분의 2가 물로 이루어진 지구는 그야말로 《물의 행성》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에 실지 사람이 리용할수 있는 물자원은 불과 0.26%밖에 안된다. 대부분이 바다물과 얼음산으로 되여있기때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얼마 안되는 이 물자원마저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공업, 농업용수의 엄청난 소비 그리고 물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계속 줄어들고있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수십년동안 물사용량은 매해 4~8%씩 늘어났으며 현재 민물사용량에서 농업용수가 70%, 공업용수가 20%를 차지하고있어 앞으로 세계적으로 물이 원유보다 더 귀한것으로 될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로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에서 가물과 무더위피해가 지속되게 되며 이 지역들에서의 물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오수와 공업폐수에 의해 오염된 물을 먹는물로 사용하고있는것도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현재 7억 8 000만명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있으며 불결한 물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으로 해마다 340만명이 목숨을 잃고있다. 물위기가 앞으로 더욱 심화되여 2025년에 가서 세계적으로 35억명의 인구가 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될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또한 물위기는 나라와 지역들사이에 충돌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번져지고있다. 이미 지난 세기 60년대에 일어났던 제3차 중동전쟁도 물자원확보를 위한 전쟁이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5대물분쟁지역들이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심각한 물부족으로 하여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날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물위기는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물오염을 방지하며 새로운 물원천들을 계속 찾아낸다면 세계적인 위기로 제기되고있는 물부족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물절약과 관련한 선전, 교양활동들이 강화되고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물절약상을 제정하고 가정들과 물절약에 관한 내용들이 게재되여있으며 학생들이 쓰는 학용품들에도 《물절약》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통하여 물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잘 알게 된 학생들은 커서도 물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다고 한다.

물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전국에 분포되여있는 1만 6 000km에 달하는 개방된 물길을 밀폐식물길로 개조하여 930억L에 달하는 물자원을 절약하였다고 한다.

지금 농업분야에서 물절약형농법이 추세로 되고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이 바로 방울식관수체계를 리용한 농사방법이다. 물이 부족한 중동의 어느 한 지역에서는 이 관수체계를 도입하여 농업생산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방울식관수기술은 《발관개가 아니라 들에서 수도꼭지를 막지 않고 이를 닦을 때 얼마나 많은 량의 귀중한 물이 랑비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해설해주는 등 사람들속에서 물절약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물절약운동을 후대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되여있는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고 새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물을 절약하도록 교양하고있다. 이 나라의 학교교재들에는 물과 인간생활에 대한 자료들과 물절약에 관한 내용들이 게재되여있으며 학생들이 쓰는 학용품들에도 《물절약》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통하여 물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잘 알게 된 학생들은 커서도 물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다고 한다.

물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전국에 분포되여있는 1만 6 000km에 달하는 개방된 물길을 밀폐식물길로 개조하여 930억L에 달하는 물자원을 절약하였다고 한다.

지금 농업분야에서 물절약형농법이 추세로 되고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이 바로 방울식관수체계를 리용한 농사방법이다. 물이 부족한 중동의 어느 한 지역에서는 이 관수체계를 도입하여 농업생산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방울식관수기술은 《발관개가 아니라 작물관개》라는 선진적인 관개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발명되였다. 이 기술은 물을 극력 절약하고 관수와 비료주기를 일체화할수 있는 등 전통적인 관수방법에 비해 우점이 많다고 한다.

한편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세탁기와 샤와, 변기, 수도꼭지 등 물절약설비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여 널리 일반화되고있으며 가정과 기관들에서 수도물을 재순환리용하기 위한 체계도 도입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공업폐수에 의한 강하천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극력 통제, 제한하고있으며 물자원보호를 위한 환경보호단체들의 활동도 적극화되고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물원천들이 적극 탐색되고있다. 바다물담수화기술과 오수정화기술을 비롯한 선진과학기술에 의하여 이전에는 리용할수 없었던 바다물과 오수가 새로운 물원천으로 전환되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여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는 건물들에 반드시 비물리용체계를 갖추어놓도록 하고있다.

사막에서 이슬을 수집할수 있는 물수집장치도 개발되였다. 특수한 재료로 제작된 이 장치를 사막에 두면 하루밤사이에 3L의 이슬을 모을수 있다고 한다.

제반 사실들은 모든 나라, 모든 지역들이 자체의 실정에 맞게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고 여기에 힘을 넣을 때 세계적인 물위기에 능히 대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안 철 권

ㄱ-61001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